

뉴스 & 뉴스

진흥원 10-12일 수련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0일~12일 2박3일동안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해거스님과의 불교진리탐구' 수련회를 갖는다.

이은지 기자

민영교도소설치 공청회

법무부는 교정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형법' 개정과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도입 문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재경 기자

도심포교당 세미나 연기

포교의 포교연구실 주최로 4일 '도심포교당의 위상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열린 예정이었던 도심포교당 세미나가 연기됐다.

김종근 기자

포교연구실은 "최근 일련의 사대로 정상적인 증무행정이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 연기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개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대구 파라미터 심포지엄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덕)는 5일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에서 '청소년문제 진단 및 포교활성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라미터 대구지부가 지난날 발족한 이후 갖는 첫 행사로 임전수씨(농민중학교 교사)가 '전환기의 청소년문제'를, 지거스님(동화사 포교국장)이 '지역 청소년포교의 현황과 해결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성세대 및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053)982-0101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금강국수공장 지원 연하장

조국경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지원기금마련을 위해 연하장을 판매한다. 연하장은 범주스님의 선묵화가 프린트된 4가지 종류가 선보이고 있으며, 1천원에 보급되고 있다.

(02)735-5558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폐교위기를 맞은 대원불교대학, 불교교양대학의 효시로써 72년 개교 1천여명의 재가법사를 양성했다.

대원불교대 문단을 위기

재정난 이유...4년과정 신입생도 없어 대원법사단·동문등 폐교반대 움직임

해방후 불교계 최초의 불교교양대학으로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이 이사회(이사장 박은준)의 폐교논란으로 개교 이후 최대의 내홍을 겪고 있다.

이은지 기자

결정지를 예정이었으나 대원법사단과 동문 재학생 50여명이 폐교 결정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박 이사장을 비롯 대다수 이사들이 불참해 이사회가 유회됐다.

기사의 대원불교운동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대원불교대학은 지금까지 1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천여명의 재가법사를 양성해 현재 전국 6개지회에서 재가불교신행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유적지 인접지역 개발도 문화재보호위 허가 받아야"

서울고법 '계명대 선도산 개발' 위법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유적지 인접 지역에서도 앞으로 문화재보호위원회 허가없이 발굴을 할 수 없게 됐다.

해 5월 발굴 신청을 냈다가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발굴을 허가 받지 못했다. 발굴 허가를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6분과는 '선도산과 그 주변 역사유적 환경 보존'을 이유로 발굴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연꽃마을 노인무료병원 대구·평택에 또 개원

총 12곳 운영...연 72만여명 이용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선)은 대구·평택에 법인산하 11·12번째 노인무료병원을 12월 중에 잇따라 개원한다.

Table with 2 columns: 지역 (Location) and 전화 (Phone Number). Locations include 송파, 마포, 청주, 군포, 대전, 안양, 보은, 안양, 수원, 인천.

지침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이처럼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 당 하루 이용 노인들은 2백여명. 연인원 72만여명이 연꽃마을 경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창립 30주년을 맞은 군승단은 11월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백만명 수계 거사불교 '초석'

군승단창립 30년 법회의식 현대화 한류

군포교 전담부서 필요

군승단(단장 이희용, 원주 법용사 주지법사)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68년 11월 30일 군승 5명이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군포교가 시작됐다.

(swjung@buddhapia.com)

"스님들 싸우는 절에는 밋허러 가." "스님은 스님이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살아요." "아, 가지 말라던 가지 말아가지."

서울 가자정중에서 사는 정 모(42) 보살은 요즘 시내의 한 사찰 부설 불교사회봉사단체에 갈 때마다 이런 말다툼을 한다. 교회에 다니는 이웃집 주부는 불 때마다 스님들을 비꼬듯이 말한다.

김재경 (취재 1부 기자)

조계종 포교사 고시 난이도 높았다

647명 접수 519명 응시

포교사고시가 까다로워졌다. 11월 22일 실시된 조계종 포교사 고시 응시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운 기자

소리죽인 '나는 불자'

스님들은 저마다 나름의 명분으로 '정법수호·파시현정'을 외치고 있지만 비불자들은 '감투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jgkim@buddhapia.com)

Large advertisement for '98 불국토 산하법인 사업보고회' (1998 Buddhist Land Subsidiary Business Report Meeting). Includes details about the date (Dec 4, 5 PM), location (Dongbaek Hotel), and various award categories like 'Best TV Program' and 'Best Buddhist TV Program'.